



130억 원 증발, 재정난 고통 전가, 불통 구조조정 등... 최순자 총장은 즉각 퇴진하라!

지난 2월 27일, 우리는 개강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인하대가 매입한 130억 원 상당 한진해운 채권을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 측은 이 엄청난 사실을 언론 보도보다도 늦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학내에 알렸다.

학교가 이후 해명이랍시고 한 2차례 설명회(3/11, 3/16)는 사태에 대한 의혹과 분노를 키우기만 할 뿐이었다. 최순자 총장은 진심어린 사과와 실질적 총장 계획을 발표하기는커녕, 참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왜 시비예요?", "자네는 몇 살이야?" 등 실언을 하기 일췌였다. 설명회에서 학생들은 프라이م 사업 졸속 추진이나 송도캠퍼스 위약금 사태 등 총장의 학사 운영과 교육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과 비판을 성토했다. 총장과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깊고 광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교수회와 교직원 노동조합 총회에서 최순자 총장 퇴진 안건이 찬성률 각각 93.5%와 99%로 통과됐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여론인 것이다. 박우상 교수회 의장은 "인하대 역사상 교수회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총장 사퇴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한진해운 채권 투자 손실 진상 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상당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5년 2차례에 걸친 한진해운에 대한 투자는 과정뿐 아니라 이후 관리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관리지침을 어긴 것이다. 학칙과 교육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총장과 학교 측의 담화문과 설명회 등은 거짓이었으며 오히려 이들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총장을 비롯해 관련된 본부 임원들 모두 책임지고 퇴진해야 마땅하다.

책임의 주체

교수회, 중앙운영위원회, 교직원 노동조합은 총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자 총장에게 4월 30일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매일 아침 캠퍼스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며 압박해 왔다. 진상조사위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재단에 책임을 묻는 요구가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추가로 밝혀져야 할 사실이 남아 있지만, 학생 복지와 교육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돈 130억 원이 위기에 빠졌던 재단 계열사에 투기되어 날아간 것은 변함이 없다. 규정 무시와 사무처 전결 등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공과대학 교수회의 성명대로 재단의 "요청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재단인 한진그룹은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졌으며, 민중이 끌어내린 박근혜 정권에게 뇌물을 바쳤던 부패한 재벌이다. 게다가 본교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 생협 불법 감사 등 학사 전반에 개입해 악행을 저질러 온 악질 재단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 비용의 50~60%를 짊어지고 있지만, 재단은 3%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재단 계열사에 투기해 날려 먹은 돈은 마땅히 재단이 책임져야 한다.



© 예술체육대학부 학생회

지불 여력과 책임이 있는 재단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도 정당한 방법이다.

총장 퇴진 운동

최순자 총장은 취임 당시 '재단에 할 말 하는 총장'이 될 것임을 선언해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장은 시늉뿐인 소통을 하며 독단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고, 이에 분노해 사퇴한 학교 임원(교수)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재단이 시키는데 어찌라는 말이나'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안 할 말까지 하는 총장'이다.

게다가 최순자 총장은 18대, 19대 총선에서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신청했으며,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친분이 깊어 시정 요직을 맡은 바 있다. 2014년 말에는 새누리당 등 보수 인사 위주의 시민단체 설립을 상임대표로서 이끌기도 했다. 특히, 2012년 정부 산하 기관장(한국산업기술평화문화재단 이사장) 재임 중에는 친인척 채용과 공공 유용으로 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박근혜의 측근인 점 덕분에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다.

최순자 총장의 이 같은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총장 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조기 퇴진할 경우 정치 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려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30억 원 손실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총장 인사권을 보유한 재단 역시 고분고분한 총장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총장 퇴진을 이루고, 130억 원 손실금을 재단이 물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점거와 시위 등의 강력한 투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수개월 간의 본관 점거와 시위를 통해 정부와 연계된 정책(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철회시키고 정권의 적폐 인물인 최경의 총장을 몰아내 커다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이후 민주적 총장 직선제 쟁취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투쟁을 곳곳이 이어가고 있다.

재정난 고통 전가

130억 원 손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 요구를 재정난을 핑계로 거절했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총장은 "기관마다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며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는 궤변으로 답했다. 오히려 교수회 총회에서 드러났듯,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불법으로 신입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임금을 삭감할 준비를 야금야금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임기 첫해부터 지속적으로 반발에 부딪혔던 학과 구조조정 역시 다시금 졸속 추진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짓밟고 있다.

최저임금만큼도 못 받고 교통비도 없이 일하는 간접고용 청소년노동자들의 작디작은 임금 인상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진짜 사장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면담에서 "업체와 얘기하시라"며 발을 뺐다. 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20여 개를 마음대로 떼버리는가 하면, "업무를 방해한다"며 졸업식 당일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을 경찰을 불러 가로막기까지 했다.

130억 원 손실과 그로 인한 재정난의 고통과 책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일이 공공연하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총장과 학교 측의 독선과 악행을 막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장 퇴진과 재단에 책임을 묻는 요구가 결합돼 강력한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최순자 총장은 퇴진하고, 학교와 재단이 발벗고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



진짜 사장 인하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의 생활 임금 보장하라!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청소 노동자들과 최순자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

금은 전국 평균 생활임금 7725.8 원과 1000원 넘게 차이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43만 7천원으로 2017년 한국노총 표준 생계비 중 여성 1인 가구 211만 9천원의 67.8%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교라는 인하대가 이렇게 소박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학교 청소 노동자 중 압도 다수(학교 직 고용 9명, 간접고용 134명)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 돼 있는 하청 노동자다. 학교

"법적 사용자는 용역 업체내 업체와 얘기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1~2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리 학교에서 일해왔고, 길게는 30년 넘게 일한 분들도 많다. 용역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는 진짜 사장 인하대 당국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등록금이 싸서 임금을 올려 주기 어렵다"며 노동자와 학생을 이간질하려 한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1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았고, 재단 계열사의 부실한 채권에 투자해서 1백30억 원을 날려먹었다. 그럴 돈은 있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 인상도 해 주기 싫다는 것이 학교 당국의 태도다. 학교는 학생과 노동자의 이간질을 중단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돼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 문제는 청년·학생들의 미래와도 연결돼있다. 헬조선에서 저질 일자리,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학생들에게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청소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열악한 처지만 강요하는 학교에 맞서 힘을 모으자.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는 청소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같은 청소 일을 해도 직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건 차이가 크다(직고용 월급 200만원 이상). 그런데 학교 측은 직고용 노동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한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 비정규 노동자 4명 중 1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하도급, 외주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이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노동법·산재·4대보험 등 각종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유리해 그 비율을 늘려왔다.

현재 용역 업체는 "학교가 주는 돈이 워낙 적어 임금 인상이 어려우니 학교와 얘기하라", 학교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그 후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단결하고 투쟁하는 날로 자리잡았다.

역사적인 날인 메이데이에 우리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동자 분들은 현재 시급 6220원에서 6880원으로, 교통비 0원에서 6만원으로, 상여금 80만원에서 1달 기본급의 100%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다. 6880원은 인천시가 지정한 올해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인천시 생활임

학교 당국은 구성원의 정당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게시물 설치 제한 중단하라

4월 21일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교내 게시물 및 현수막 설치 방법 안내' 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게시물 통제를 대폭 강화해 학내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학교 당국은 앞으로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1주일 전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수막은 개인 또는 단체 당 1개, 게시물은 개인 또는 단체 당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제한된 위치에만 걸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설치자 또는 설치 단체명, 설치자 연락 번호 등의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규칙을 세 번만 위반해도 영구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등 벌칙 사항도 지나치게 무겁다.

학교 당국은 "미관 저해 및 관리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상"을 운운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미관'과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조처는 비민주적인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 발전기금 130억 원 손실,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처는 학교측이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목소리를 비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공지가 되고 바로 다음 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담긴 현수막 20여 개가 철거됐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학생들의 현수막 역시 함께 사라졌다. 철거된 현수막은 전부 소각장에서 발견됐다.

4월 20일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학교측은 현수막 설치를 허용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개가 넘는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철거한 것이다. 뻔뻔스럽게도 학교측은 지난 4월 27일 '교내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철거 예정 안내' 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설치한 현수막들을 또 다시 철거했다. 그 뒤 청소 노동자들이 항의방문하고 게시물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는 듯 보이자 학교측은 사과와 함께 현수막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게시물 제한 규정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다.

캠퍼스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 측은 부당한 명분을 내세우며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적 목소리와 저항을 억누르는 게시물 설치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인하대모임이 주최하는 공개 토론모임

마르크스주의로 바라본 세월호 참사와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세월호 참사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드러낸 일대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구속과 함께 세월호 인양이 완료된 지금, 책임자 처벌과 진실 규명은 어떻게 가능한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 봅시다.

일시 5/10(수) 저녁 7시
장소 5남 인문스터디룸G
연사 김승주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저자)

성소수자 억압과 해방의 전망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춧불이 만든 조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공공연하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내뱉으며 성소수자들에게 비수를 꽂으며, 육군에서는 합정 수사와 자백 강요·협박으로 동성애자들을 색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억압은 왜 발생하는지, 아무도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근본적 원인과 해방의 전망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일시 5/24(수) 저녁 7시
장소 추후 공지
연사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